

두산중공업, 풍력발전 3대기술 확보

4억5000만유로에 체코 터빈기업 인수 ... 2020년 매출목표 2조6000억원

두산중공업이 체코의 풍력터빈 기술 보유기업인 Skoda Power를 인수함으로써 풍력발전의 3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9월14일 체코 프라하에서 Skoda Holding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설비 전문기업 Skoda Power의 지분 100%를 4억5000만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oda 그룹은 1859년 설립돼 150년의 역사를 지닌 체코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핵심 계열사 Skoda Power는 1904년부터 터빈을 생산하기 시작해 세계 62개국에 450여기의 터빈을 공급한 바 있다.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3대 핵심 설비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설비 분야에서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등 글로벌 선진 업체와 경쟁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

특히 발전설비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터빈 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해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전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으로부터 터빈을 구매해왔으나 Skoda Power를 인수함으로써 선진기업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보일러-터빈-발전기(BTG) 패키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터빈 분야의 매출액이 2조60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4>